

傳統住居의 領域化와 境界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Territorialization and Boundary of the Korean Traditional House

정 영 철*
Chung, Young-Chul

Abstract

Korean Traditional Houses had been composed of several territory. Sarang-Chae was territorialized from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and the sexual discrimination of Confucianism. The territory of ancestral shrine was formed with the filial duty of Confucianism. Korean Traditional Houses have the visible, material boundary and invisible, symbolic boundary which is repeated into the inner space. Korean Traditional Houses are appreciated as the enclosed territory which the sacred inner space of the house is in opposition with the profane outer space, and the inner space of the house has hierarchical boundary by the hierarchy of the house god.

I. 서 론

건축물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표현과 같이 전통주거는 인간의 삶과 보다 복잡한 연계성을 가지며 우리나라의 특유한 사회적, 문화적, 시대적 요구가 집약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다. 한국의 전통주거는 채와 마당으로 이루어지는 영역별로 나뉘어져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영역들은 모두 주거 공간 속에서 실질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잘 배려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영역들은 조선시대 통치이념이었던 유학이념과 당시 사회상의 변화나 민간신앙 등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거라는 물적 환경과 그 속에서 살던 선인들의 삶을 지배한 유학이념과 사회상의 변화, 민간신앙의 관계에서부터, 전통주거에 있어서 각 영역이 이루어진 과정과 그 영역 및 경계가 지니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영역의 개념을 살핀

다음, 전통주거에 있어서 영역이 형성되는 과정을 검토하고 주거 내의 영역 및 경계의 성격을 고찰한다. 영역화의 과정을 살피기 위해 주거 영역 중 주된 것인 안채와 사랑채, 사당의 분화에 초점을 두어, 주거의 일상생활과 사회상의 변화에 따른 안채에서부터 사랑채의 분화, 성과 속의 구분에 따른 사당의 분화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자연적 및 인문사회적 환경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안채와 사랑채를 겸비한 조선 중기 이후의 중상류 주거를 대상으로 하여, 대상주거의 안채와 사랑채의 공간구성을 분석하여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되지 않은 일체형 형식과 서로 떨어진 별동형 형식으로 나누어 그 조성시기에 따른 변화를 검토하였다.

II. 領域의 概念과 傳統住居의 領域化

1. 領域의 概念과 建築空間

1) 領域의 概念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는 공간의 일부를 소유하여 삶의 터를 마련하고자 하는 욕구와, 필요시 타인에 의한 침입을 방어하고자 하는 욕구로 구분

* 경일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본 논문은 경일대학교 학술조성연구비에 의한 것임

되는데, 영역적 행태는 Stea(1982)가 말하듯이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영역성은 통제와 관련된다¹⁾고 할 수 있다. 영역에 대하여 소유와 방어라는 개념으로 정의한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방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으로, Lorenze(1969)는 영역적 행태를 ‘주어진 범위에 대한 방어’라고 하며, Ardrey(1966)는 ‘영역이란 동족 구성원에 대한 방어를 우선으로 하는 공간의 한 부분이다.’²⁾라며 방어적 개념으로 영역성을 정의하고 있다. 사람들은 생태적으로 방어 본능을 갖고 있는데, 다른 동물들처럼 자기 신체를 특수화시킬 수 없으므로 의복이나 주거를 신체화시킴으로써 생물로서의 기본적인 방어 욕구를 충족시켜 왔다.

한편 공간의 일부를 소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소유를 주장하는 행위로서 영역을 방어하는 것을 영역성이라 한다’(Hall, 1959), ‘자신의 물리적 관할 한계 주위에 경계를 표시하려는 것’(Brower, 1965), ‘개체로서의 한 사람 혹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소유를 주장하고 방어하게 되는 공간’(Parr, 1965), ‘영역이란 개인, 가족, 혹은 공동체에 의해 조정 통제되는 지역으로서 방어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소유되는 부분이다’(Sommer, 1969)³⁾ 고 하며 방어 개념에 소유와 같은 다른 개념을 덧붙여 영역성을 정의한 것도 있다.

말하자면 영역성은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장소나 지역이 소유 또는 점유되는 것에 관련된 행태 유형이며, 또 개인화 및 사유화된 지역의 침입에 대한 방어를 포함한 개념으로서, Ardrey(1966) 등이 말하듯이 인간의 일상적 행위를 안정화시키며, 장소나 대상의 조절을 통해 자기 자신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인식시키고, 사회적 역할과 상호 작용을 유지시키거나 조정하고, 타인의 불의의 침입을 막아주는 장치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다.⁴⁾

영역이란 사람들이 자신과 외부 사이에 방어를 위해 標識하려는 경계 설정 구조이며, 그리고 자신이나 집단에 의해 삶을 위해 소유되었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영역이란 가시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 외적 침입에 대한 방어를 위해 표시되거나 공간소유와 기능을 위해 특성화된

지리적 범주라고 할 수 있다.

2) 領域性과 建築空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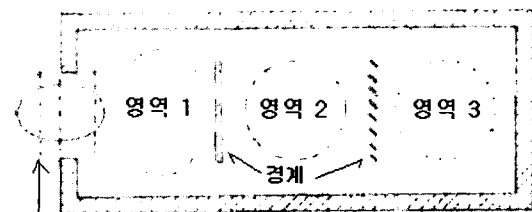
영역은 영역적 행태가 물리적으로 경계, 구획되어 발현되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유지해 주며, 개인이나 가족, 또는 집단에 의해 통제되며 영역적 요구를 만족시킨다. 사람들은 이러한 장소에 대한 요구의 한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영역성을 공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영역의 구조화는 인간 요구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는 인간의 모든 행태적인 환경을 영역간의 경계가 구조화시킴으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환경에 대하여 행태적 적응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하는 Bell(1978)의 말에 잘 나타난다.⁵⁾

Bell(1978)은 또한 영역을 구조화하는 것이 영역을 설정하는 경계를 구조화하는 것임을 밝힌다. 즉 어떤 공간의 영역적 만족은 그 경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와 관련한다는 것이다. 경계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인간의 생활 행위와 정서적 안정에 작용하는 한정된 범위를 설정해 준다. 경계 구조화의 개념은 영역성에 의한 공간 구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인간 행태와 일치된 공간 단위는 반드시 물리적인 경계 구조화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 형성되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도덕적 및 관념적 경계에 의해서도 구성되기도 한다(그림 1 참조).

건축적 의미에서 하나의 온전성을 지닌 공간의 단위인 영역⁶⁾은 경계 요소들에 의해 시각적으로 폐쇄되어 있으나 지각적으로 연속성을 불러 일으키거나 암시하여 지각적으로 풍부한 공간체험을



통과의례를 위한 장치

그림 1. 영역의 경계 구조

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경계요소들은 그 시각적인 폐쇄와 지각적인 연속감으로써 물리적으로 경계지어진 영역을 연결하며 또한 영역으로의 방향성을 유도하는 공간의 연속성이나 위계성을 분절하거나 연결하는데 작용을 한다. 즉 올바른 방향성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면서 공간으로 유도하는, 그리고 시각적 분절과 지각적 연속이라는 성격을 갖는 경계요소들은 공간의 연속성과 위계성을 고조시키는 것이다. 공간의 연속성은 단순히 공간을 연결시키는 것 외에 공간간의 질서 곧 위계(hierarchy)를 형성하는 것이다. 공간의 위계성은 경계 요소로 구획된 단위 공간들이 기능별로 분절, 독립된 듯하지만 질서있게 연속되며 일정한 축을 통해 중심적 또는 종속적 관계를 갖는 것이다.

한편 하나의 공간에 대한 습관적인 점유적 사용을 의미하는 이러한 영역적 행태는 각 문화에 따라 조절되어 다르게 나타나므로, 문화가 중요한 행태적 동기(behavior modifier)로 작용하는데, 이런 영역적 성격 중 중요한 것으로서는 안전성과 주체성을 생각할 수 있다.

주거 건축에서는 소유와 사생활, 집안 관리, 외부로부터 있을지 모를 침입에 대한 안전 등 모든 종류의 행태를 위해 안전성(security)이 특히 중요시된다. 이러한 안전성은 그 인식에 있어 문화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Rapoport(1969)는 특히 각 민족들의 전통 주거에 있어 문지방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여 주거공간에 관한 영역적 침해, 즉 사생활의 자극에 따른 반응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⁸⁾

또한 주거공간의 이미지는 주체성을 표현하는 수단 중 하나이기도 한데, 주체성(Identity)은 개체로서의 자아 의식과 자아 판단의 자유로움 등을 의미한다. Jung(1969)은 ‘집이란 자아의 우주적, 원천적 상징’으로 보며, 개인이 어떻게 자기를 바라보며 또한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보기를 원하는가가 주거에 반영된다고 했으며, Cooper(1974)는 ‘집이란 바로 자아의 상징(symbol of self)’이라고 했다. 또 영역은 자아를 유지하는 유지대로서, 이를 위한 영역적 조절은 크게 방어(defence)와 개인화

(personaliza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주거는 안전성, 주체성 등 영역적 성격들을 개인화와 방어 기능을 통하여 충족·유지하는 영역 단위로서 이웃과 함께 사회적 영역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傳統住居의 領域化

1) 機能의 分化-사랑채의 領域化

전통주거는 우리 선인의 삶을 담은 그릇으로서 외부 세계와 경계지으며 영역을 구성하여 왔고, 주거내의 각 영역들은 적합하게 배치되며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이들 영역들은 당시 생활윤리 규정이었던 유학이념과 생활상 및 민간신앙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여기서는 주거의 일상적인 생활상과 사회상의 변화에 따른 주거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특히 안채와 사랑채의 분화 과정을 살펴본다.

17세기 이후에 세워진 현존하는 대부분의 조선시대 상류 주거에 있어서는 사랑채의 확장 또는 생성이 두드러지는데, 이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의 주거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⁹⁾

일반적으로 전통주거에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는 유학이념의 남녀유별에 따라 남성공간과 여성공간으로 분리되었다고 파악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 보면, 고려시대까지는 남녀공간의 영역이 어느 정도는 구분되었지만 남녀의 사회적 차별 의식보다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주거공간이 분리된 듯하며, 전통주거가 처음부터 남녀구별에 의해 영역이 구분된 것 같지는 않다.¹⁰⁾

즉 선사시대 수혈주거를 보면, 집 안쪽 부분에서는 화로가 있고 토기가 출토되어서 취사 등 여성들에 의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석기 등 연장이 있는 출입구 쪽 부분은 남자들의 작업, 활동공간임을 알 수 있다.¹¹⁾ 남성들이 사용하던 석기와 여성들이 쓰던 토기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출토된 것은 하나의 수혈주거 안에서도 남녀 또는 기능에 의한 공간이 분화되었음을 말해 준다.¹²⁾ 삼국시대와 고려 시대까지 남녀의 교제가 비교적 자유로웠으며 남녀의 사회적 차별의식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

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거공간이 남녀의 성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듯하다.

이러한 것은 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사회구조였던 15세기 조선 초기까지 지속되어서, 주거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주거 자체로서 족하며 사회 활동을 위한 사회적 기능을 수용할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나 왕도정치를 표방하는 16세기 이후, 유교적 이상사회를 현실 생활에 구현하고자 한 사람들이 향촌 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사회적 공간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이 사회적 공간의 기능을 하는 서원이 없을 경우에는 주거가 향촌 사회를 지배할 사회적 기능을 어느 정도 담당했을 것이다.

즉 사회적 배경이 변화됨에 따라 주거 공간은 사회적 기능과 가정적 기능이 혼재되었으나, 사람들에게 의해 유교가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16-17세기를 거치는 동안 기능이 분화되면서 안채 영역에서부터 사랑채 영역이 분리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기능의 분화에 따른 사랑채 영역의 형성은 시기별로 주거를 살펴봐도 알 수 있다(표1, 그림 2). 16세기 초기에는 사랑채와 안채가 한 몸을 이루는 일체형 형식(손동만가옥, 향단, 임경당, 물체당,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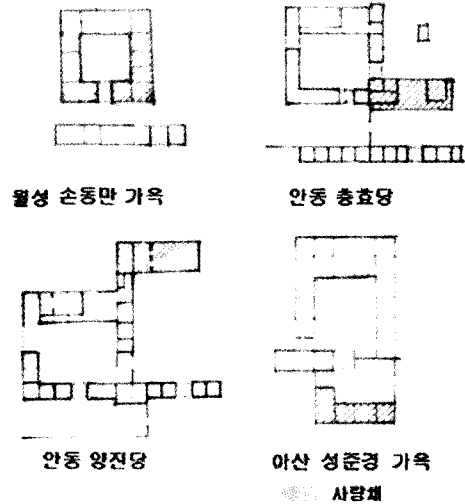


그림 2. 기능 분화에 따른 사랑채의 영역화

가정)이었다. 17세기초에는 평면상으로는 접속되었으나 지붕 구조는 연결되지 않은 분리형 형식(하회 충효당)으로, 17세기 중엽에는 사랑채가 안채와 평면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별동형 형식으로 전개된다. 이 별동형으로는 口자와 결합된 것(독락당, 예천권씨종가, 의성김씨종가, 양진당), ㄷ, ㄱ, 一형과 결합된 형식(아산성준경씨택, 예산이참판고택, 회덕동춘선생고택, 묘동박황씨가, 윤선도고택) 등이 있다.¹³⁾

이처럼 주거 내에서 사회적 및 가정적 활동은 어느 정도 분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랑채는 점차 분리되어 갔으며, 안채는 대외적으로는 폐쇄적으로 되어 갔다. 한편 16세기 이후 예기의 기록은 위정자들에게 유교사회에 맞는 주거의 이상향으로 여겨졌을 것이므로, 사회적 기능의 분화에 따른 사랑채의 영역화와 함께 유교이념에 따른 남녀공간의 분리는 주거의 공간구성의 변화에 가속도를 주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곧 유교이념에 입각한 조선시대 위정자들은 남녀유별 의식에 따른 남녀공간의 분리를 생각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한 듯 하다. 禮는 부부 사이의 도리를 삼가는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집을 지을 때는 안과 밖의 구분이 있게 한다. 남자는 밖에 거처하고 여자는 안에 거처하며 안채는 깊숙하게 하고 안과 밖의 사이에는 문을 두어 閨寺(혼사)가 사람의 출입을

표 1. 대상주거의 건축년도 및 공간구성

대상주거	건축년도	공간구성	대상주거	건축년도	공간구성
월성 손동만가옥	15c		월성 수출당	17c	
월성 관가정	16c		해남윤선도고택	17c	
예천 물체당	16c		예산이참판택	17c	
월성 향단	16c		아산성준경씨가	17c	
강릉 임경당	16c		정음 김동수	18c	
안동 임경당	16c		함양 정여창	18c	
하회 충효당	17c		의성 김동주	18c	
구례 운조루	18c		경주 최식택	18c	
영천 정재영씨가	18c		묘동 박황씨가	18c	
월성 독락당	16c		중원 윤인걸	18c	
예천 권씨종가	16c		예산 추사고택	18c	
안동의성김씨종가	16c		파산 김기용	안18c 사20c	
하회 양진당	17c		아산 참판택	19c	
회덕동춘선생고택	17c		강릉 선교장	19c	
논산 윤중고택	17c				

안채 사랑채

감시하게 한다. 남자는 안에 들어가지 않으며 여자는 밖에 나오지 않는다’, ‘正寢은 앞에 있고 燕寢은 뒤에 있고 側室은 燕寢의 옆에 있다.’¹⁴⁾라는 예기의 기록, 그리고 太宗의 「夫婦別寢」¹⁵⁾ 등 유학적 내용은 주거 공간 구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전통주거에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는 본질적으로는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적 기능의 분화, 그리고 남녀유별의식에 따른 여성공간과 남성공간의 분리로 영역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사랑채는 주거에 있어서 사회적 기능과 성격을 유지해 주는 반사회적 남성의 공간으로, 안채는 사랑채의 사회적 기능의 수행에 따른 가정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적 여성의 공간으로서, 가정의 모든 주거 생활이 이루어지는 중심 공간이 되게 되었다.

2) 聖俗의 區分-祠堂의 領域化

聖所의 형태는 자연이나 인공의 사물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기호적 및 영역적 공간의 유형과, 구체된 격리적 기능이 의미 작용에 의해 현상되는 공간의 유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¹⁶⁾, 조선시대 건축에서 주택 내에 지어진 家廟(사당)은 聖과 俗(the sacred and the profane)을 분리하는 死者(the dead)와 生者(the live)의 공간으로서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家廟는 주거의 일상적 생활공간과는 구분되어 신성하게 여겨지는, 즉 聖俗 구분으로 영역화되어 이루어지는 주택 건축에 있어서 성스러운 공간이며 崇祖 意識 공간으로 이해된다.

이 가묘는 조선시대에 들어서 일반화된다. 조선 시대는 건국 초기부터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으므로 그 덕목을 익히고 따르는 일을 평생의 과업으로 여기는 등 유학 이념이 생활 구석구석까지 깊은 영향력을 끼쳐왔다. 유학이념은 忠과 孝를 중심으로 하는 禮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유학에서 중시한 禮는 원시 사회의 제천의식에서 이루어지던 神性和 不淨의 관념을 기초로 한 금기의 관습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유학이념이 살아있을 때의 孝보다 사후의 敬을 더욱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 의식 가운데 제례의식이 가장 중요시되어 왔다. 자녀의 均분상속과 남녀구별이

심하지 않았던 고려시대의 가족 제도가 조선 시대에 와서 철저한 남계위주의 법제, 신분제도, 재산 상속에까지 반영되는 것은 유교가 상제례에 비중을 두었음을 말해 준다.¹⁷⁾ 이러한 유학 이념은 행동 윤리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이를 실천 윤리로 하는 주택과 같은 영조물 조영 등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사회 집단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중요한 가족구조는 조선시대에 있어서 禮를 바탕으로 하는 유학적 사고를 근간으로 하여 유지되어 왔다. 국가의례인 유교가 가례의 외연으로서 사회체계를 유지하는 조선시대의 신념체계 형성에 있어서 가족은 중심점이 되며 모든 제도나 조직이 가족제도와 함수 관계를 가진다.

孝는 유학이념의 최고지선의 도덕개념이었던 것으로, 이러한 조상숭배의식은 조선 시대 이후 유학의 실천 윤리 보급으로 더욱 중시되었고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가묘나 사당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가묘의 발생은 인간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선조숭배사상의 소산이지만, 아득한 삼국시대부터 고려 이전의 종묘제도는 토착적인 성격이 강해서 유교적인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¹⁸⁾ 가묘제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전반적으로 정착되기는 주자학의 전래 이후인 고려말, 조선 초기였다.

家廟를 세우기 시작한 것은 고려 공양왕 2년 정몽주의 건의에서 비롯되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서 와서 태조 4년 12월에 知益州事 閔由義가 가묘를 세웠고, 태조 6년 4월에는 사대부의 家廟之制를 諫官이 상서하였다.¹⁹⁾ 태종 6월에도 사헌부 大司憲 許應 등이 7條 중의 하나로 공경대부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가묘를 세우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불효로 논할 것을 주장하였다.²⁰⁾ 양반집에 사당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출가한 승려조차 유교적 喪禮를 받들게 할 정도였으며, 시대가 지나면서 가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조선시대 주택 건축은 유교사상에 의해 가묘제가 일반화됨에 따라서 주거의 생활공간 영역과는 구분된 사당 영역이 별도로 건축되어 신위를 모시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주거의 공간구

성은 사당 공간이 영역화되면서 고려말과 많은 차이를 갖게 되는 것이다.²¹⁾ 전통 주거에 있어서 조상이 계신 가묘의 공간과 주생활 공간의 경계 구분은 禮를 중시하는 유학적 사고에 기인되어 영역화한 것이다.

III. 傳統住居의 領域 및 境界의 性格

전통주거는 사람들의 심리적 필요성 또는 실제적 목적에 따라 자신을 중심으로 몇 개의 층으로 구분된 영역을 가진다.

이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로서 전통주거에 있어서는 외형적인 물리적인 선으로 공간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담장과 벽, 문과 같은 수평적인 경계, 그리고 공간이 갖고 있는 의미를 부각하며 편리함을 위해 공간을 구분하는 바닥의 높이 차이나 계단과 같은 수직적 경계를 생각할 수 있다. 경계 요소들은 두 공간의 중간 위치에 있으므로 이들은 공간적으로 격리시키지만 시지각상으로는 연결시키기도 하는 공간의 격리와 연결의 이중적 효능을 갖는다. 또한 경계 요소는 외부와 내부 세계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매개성을 갖기도 한다.

이 같은 영역의 층 구분이나, 층 사이 경계의 성격은 사람들의 생존이나 생활과 관련되며 자연 및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물론 영역의 구조화는 반드시 가시적인 물리적 경계구조에 의해 형성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의해서도 영역이 형성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영역의 경계구조가 있을 것이다.

공간의 영역적 만족감은 영역의 경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²²⁾, 이하 전통주거 내에서 주거 전체와 영역별, 건물(채)에 있어서 경계의 구조와 의미를 검토하고 그로 인한 공간의 영역적 성격을 파악한다.

1. 住居 全體의 境界와 그 意味

전통사회는 목축과 농경이 주류를 이루는 정착 공동사회로서, 공동체의 질서 유지와 개인의 생명 보호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영역의 확보와 경

계를 중시하였다. 공동사회 구조에서 각 집의 경계를 분명케 하며 노출되기 쉬운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과 마당을 둘러싸는 담장과 대문의 경계가 발달하였다. 농경에 의한 정착생활은 가족 단위의 주택을 곧, 가족을 중심으로 한 피신처로서의 주거문화를 구성함으로써 내부와 외부의 영역한계를 만들게 되었다. 선인들은 광활한 자연의 환경 속에서 구획된 경계를 짓고 한정하여 친근감과 안전감을 가질 수 있는 작은 공간, 주거라는 삶의 공간을 창조한 것이다. 즉 原生의 공간 속에서 외부로 향하여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울타리를 둘러침으로써 내부와 외부로 공간적으로 구분하는 限定(definition)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 한정이 있음으로 비로소 주거 문화가 시작되고 유지되었던 것이었다.

우리 민족은 개개인을 가족이라는 집단 속에 포함시키는 가족중심적 성향이 매우 강하므로, 주택도 이 가족중심적 구조가 반영되어 내외가 대립되는 모습을 갖는다. 즉 주택의 내부는 담장과 대문을 높고 튼튼하게 둘러싸서 외부와 구분·대립되는 수평적 경계구조를 가지며, 집과 집, 집과 밖이라는 영역 구분은 담장이 하는 것이다.²³⁾이 울타리는 외부와 직접적인 동선을 이어주며 개인성 유지와 보안에 필요한 요소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가족의 일상 생활이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문간마당을 따로 두어 대문 안에 다시 사랑대문과 안대문을 분리하여 설치하는 등 외부에 대하여 강한 폐쇄적, 방어적 성격을 보인다.

담장과 울타리는 외부와 구분시켜 건물이나 사람, 생활을 보호하고 그 소유 한계를 지어주는 경계 요소인데, 그 재질과 규모, 장식 등은 지역성을 나타내며 권위성과 상징성도 내포한다. 담의 구조와 높이를 신분별로 제한하여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상징성을 나타내었던 신라시대처럼 사회 신분에 따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담장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전통주거공간에서 영역 구분의 중요한 요소로 역할을 하는 담장은 고대를 지나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필수적이었던 것 같다. 『山林經濟』에 '집을 건축하기 전에 담장을 하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하며, 만일 그것을 먼저 만들고 담에 문을 만들게 되면 그 집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절대로 대문짜보다 담이 앞서서는 안된다’고 기술되어 있고, 『林園十六志』에 담쌓는 기법에 대해 상술하고 있는 것은 내의 경계가 되는 담장이 주택 구성의 절대 요소로 중요한 상징적 요소라는 것을 말해 준다.

한편 울타리는 경계나 방어와 같은 실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건물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보면, 자연으로부터 주거건축이라는 문화화된 환경을 잘라내는 도식이며 그 안에 문화와 생활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매체라고도 할 수 있다. 울타리는 자연과 단절되는 장벽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자연의 氣를 養生導引하는 매체로 볼 수 있다. 이는 울타리 밖의 수로를 마당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울타리의 높이가 높지 않고 재료가 허술하다든지 또는 울타리에 상서로운 동식물이나 해와 구름, 산과 돌 등과 같은 자연요소를 문양화한 장식을 붙인다거나 자연을 주제로 한 글을 써 붙인다든지 하는 조영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²⁴⁾

주거의 여러 영역들은 그 사이에 설정된 울타리로서 구체되고 문으로서 연계된다. 하나의 공간적 영역을 이루는 경계와 그 영역에 이르기 위한 통로가 만나는 지점인 문은 공간과 공간을 단절시키면서도 연결시켜 주며, 또한 공간의 위계성을 형성해 주기도 한다. 주거의 대문을 들어가면 지나간 마을 공간과는 시각적으로 단절을 이루며 지나간 시간과는 상징적 단절이 이루어지며, 진입자와 공간이 일체가 되어 공간의 영역성이 형성된다. 외부와의 경계 출입이 되는 대문은 영역과 공간에 절대적인 절점을 이루며 안과 밖에 고유한 의미를 부여해 준다. 또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는 동선의 기점이 되는 대문은 차단과 개방을 반복하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표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문은 하나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통하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독립된 구조물이기보다는 담장이나 벽 등의 경계 요소와 병존할 때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다.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들어야 그

방으로 유용하다’²⁵⁾는 말에서 방이라는 영역과 벽이라는 경계요소 및 문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문의 성격과 명칭은 문이 위치한 경계의 성격, 문을 통해 출입해야 하는 영역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내부 영역의 성격에 의해 규정된 문은 다시 영역의 안과 밖을 구획하는 성질을 갖는다. 문을 지나가는 것은 다른 영역 세계로 진입하는 것을 뜻하는데, 한 영역과 다른 영역의 경계 중 문이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문은 출입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제한을 가하기도 하는 이중성을 갖는다. 영역을 형성하는 경계는 연속적이고, 문은 이 연속선 위에 놓이므로 영역의 성격이나 문의 위치 등을 나타내기 위해 수직적 및 수평적 크기 등 시각적으로 특별한 처리를 하였다.

한편 집의 내부 영역과 외부를 구분하는 경계요소인 문의 이쪽과 저쪽은 나아가 이승과 저승의 개념으로까지 확대된다.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 저승일세.... 열두대문 들어가니 무섭기도 그지없고... 저승문전 당도하니 무섭기도 그지없고...’ 처럼 상여노래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과정을 하나하나의 문을 나서고 들어가는 것으로 노래하고 있다.

문은 영역이나 건물의 성격을 암시하는 상징성을 갖는다. 문을 통해서 사람은 물건과 출입뿐만 아니라 온갖 길흉화복, 악운이나 잡귀, 부정한 것도 들어온다고 여겼으므로 대문에 업나무나 가시나무, 화상, 부적 등을 붙이거나 붉은 색의 황토 흙을 뿌리는 등의 다양한 민속이 이루어졌다. 즉 문은 자연의 호흡을 위한 수단이며 복을 비는 장치였고 귀신을 쫓는 방패였다. 또한 대문에는 長樂門과 같이 仙境을 뜻하는 편액이나 복을 부르는 입춘대길을 붙이며 인간 새 생명의 출산과 장례도 표시하고, 사람에게 의한 부정을 막기 위해 금줄을 치는 등 심리적 경계구조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문이 소유자의 사회적 신분을 상징한다고 보아 신라시대 이후 각종 규제가 만들어졌다.

경계는 안과 밖을 구분하여 각각에 개별적인 성격을 주는데, 그 경계 사이의 변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려 경계, 곧 수호신이나 가신이 좌정하는 문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응분의 통과의례를 거쳐야 한다. 관혼상제와 같은 사회적 변이를 나타내는 통과의례가 있듯이, '건축은 사회적인 그리고 개념적인 의의를 당연히 갖는, 명백한 공간적인 변이를 만들기'²⁶⁾때문에, 공간적으로도 역시 경계에 대한 통과의례가 있는 것이다.²⁷⁾ 이처럼 전통주거는 실질적 및 심리적 경계 요소에 의해 외부 자연에서부터 의미가 부여된 보호되고 안정된 영역으로서, 모르는 세계와 구분되어 둘러싸인 친숙한 세계이며, 불안정한 세계 중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며, 의심스러운 세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곳이며, 속된 세계 가운데 성스러운 곳이며, 무질서한 세계 가운데 질서 있는 장소로 인식되는 것이다.²⁸⁾

2. 住居 領域別 境界와 그 性格

1) 境界 要素의 性格

한국의 전통주거는 채와 마당이 짝을 이루며 영역별로 나뉘어져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 공간구성법은 대지를 나누는, 말하자면 영역을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영역은 건물이나 담장과 같은 경계요소로 철저히 분할된다. 이 나뉘어진 영역들은 독자의 마당을 가지며 건물과 함께 채를 이루므로 채의 분화만큼 마당의 유형도 생기는 채와 마당의 동반성을 갖는다. 모든 채가 각각의 마당을 가지며 영역을 형성하는 것은 각기의 내부가 각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전통주거는 안채와 사랑채, 사당, 행랑채, 공간채, 별당채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지만, 家長과 주부, 조상의 삶의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크게 안채(婦)와 사랑채(夫), 사당(祖上)이라는 세 개의 영역이 중심적인 것이 된다. 사랑채나 바깥채는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남성들의 영역으로서 집객과 수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안채 부분은 주부를 중심으로 한 가정의 가계와 자녀의 양육을 맡아 수행하는 영역이고, 이들 공간과는 떨어져 사당이 세워져 있는데, 이 영역들은 모두 주거 공간 속에서 실제적 및 상징적으로 잘 배열되어 있다. 전통주거에 있어서 경계요소는 울타리(담장)나 벽, 문, 높이 차이(段差) 등 물리적이고 방어적인 경계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여러 가지 경계 요소가 있어

성격이 다른 영역이 만들어진다.

담장 내부 주거의 각 공간은 내부 담으로 구획되어 별개의 외부공간, 영역을 가진다. 내부 담은 실생활 및 유교적 영향에 의한 것으로 안채와 사랑채 사이, 사랑채의 주위, 행랑채의 주위 등에 설치되고, 여기에 일각문이 있어 공간을 연결시킨다. 시선차단을 주목적으로 설치되는 내외담은 ① 안채와 사랑채 사이의 시선 차단을 위한 것, ② 대문에서 안중문이 바로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 ③ 안중문을 가리는 것, ④ 상하의 공간을 구별하기 위한 것, ⑤ 동선을 유도하거나 혐오시설로 향하는 시선을 막기 위한 것 등이 있다.

이렇게 주거 내부에 있어서는 각 영역들이 구분되고 그 담이라는 경계요소에는 중문, 안문이 수평적인 레벨에서 설치된다. 주거 내의 이러한 여러 종류의 문은 중첩적으로 설치되며 각각의 구성 방식에 의해 영역의 성격을 암시하기도 한다. 즉 문은 출입구란 구실 외에도 공간을 이어주는 절점이 되며 공간을 분리시키기도 하고 이어주기도 하면서, 공간 변화의 계기가 된다.²⁹⁾ 대문은 개방적인 사랑마당에 어울리게 대문간을 통해 직진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반면, 안마당에 이르는 중문은 안채의 폐쇄성을 반영해 내외담을 두어 방향을 바꾼 뒤에 출입할 수 있는 경계구조를 보인다. 부엌 뒤의 뒷마당은 부엌의 앞문과 뒷문을 거쳐야만 하는 격리된 영역의 경계구조를 갖는다.

내부의 담과 건물의 벽과 같은 수직적인 면으로서의 경계 요소는 영역을 구분시키거나 주택의 외관을 형성할뿐 아니라 외부공간의 방향성을 유도하는 요소로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면이라는 경계요소가 이루는 시각적인 폐쇄와 지각적인 연속감은 물리적으로 구획된 영역을 연결하며, 나아가 이동하는 관찰자의 동선에 따라 방향성과 암시를 내포하는 공간의 연속성 또는 공간의 위계를 분절, 연결하는데 작용되었다.

영역의 경계를 이루는 담과 벽을 따라 공간이 연속적으로 전개되는데, 이 공간의 전개는 단지 수직적인 물리적인 벽과 담이 아닌 면의 지각적인 연속으로서 중첩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중첩적인 성격은 영역의 공간적 질이 바뀌는 곳에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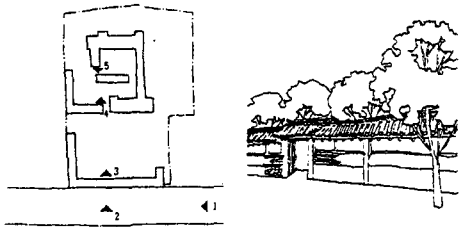
정됨으로써 밖으로부터 안으로의 질서를 이루게 한다. 즉 전통주거는 몇 겹으로 둘러싼 담이나 문과 같은 경계 요소, 그리고 마당을 지나감에 따라서 보다 넓은 공간 안마당으로 이어지며, 다시 개방된 대청과 그 뒤뜰로 확산되는 공간의 전개를 갖는다. 따라서 안채 영역은 외부에 대해 폐쇄적인 곳에서부터 내부의 개방적인 곳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과 경계의 성격을 괴산 김기응 가옥을 예로 들어보면, <그림 3, 4>에서 볼 수

있듯이 경계 진입 단계별 시경험에서부터 경계의 중첩적 성격을 볼 수 있고, 경계로 구획된 공간의 연결 기법과 동선을 잘 볼 수 있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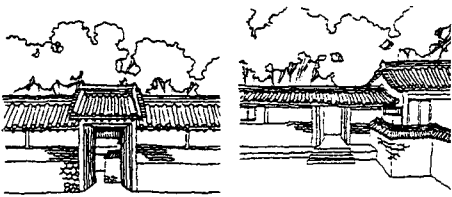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가능한 한 자연에 적응하는 건축을 하였으므로 전통주거도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높이 차이라는 경계요소로서 각 영역감을 더 하였다. 전통주거에 있어서 문간채나 행랑채는 주인이 기거하는 주건물보다 낮 위치된다. 이것은 지형에 따라 段差라는 경계 요소를 두어 영역을 형성하며 건축공간의 위계를 세우고 품격의 높낮이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차는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로서 역할을 하며, 또한 접근이나 진입 경로에 따라 심리적 효과를 주어 공간과 공간의 연속된 전이 동선의 리듬을 주기도 한다.

2) 生活空間의 境界와 領域의 性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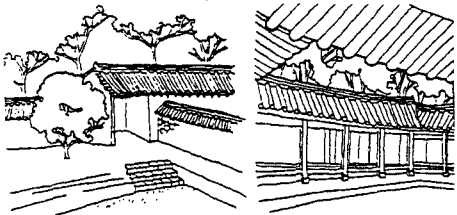
안채는 제일 깊숙한 의미를 지니는 위치에 배치되며 사랑채는 전면에 위치하여 외부와의 교섭을 추구하는 경계구조를 지니게 된다. 채의 공간구성도 마찬가지로 안채는 구심적이고 내부로의 수렴적인 형상을 지니며 사랑채는 외향적, 외부로의 발산적 형상으로 구성된다. 안채는 마당을 가운데 놓고 주위를 에워싸서 외부와 경계지어진 모습을 이루고 사랑채는 사랑채-마당-외부세계로의 체계로 구성된다. 사랑채의 마당은 외부 세계와 경계 지으며 그 중간자적 성격을 갖는 한편, 안채의 시각구조는 안마당이나 안방, 부엌, 광 등 가족이나 가사에 관련된 요소들로 이루어지며 가족들을 뭉어주는 중간자적 역할을 담당한다. 외부세계와 경계지으며 비어 있는 마당을 둘러싸고 방이 배열되는 안채는 중심성과 구심성, 수용성과 포용성을 갖는 것으로, 거주자들에게 심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게 된다.



단계별 진입 위치 1. 마을어귀로부터 대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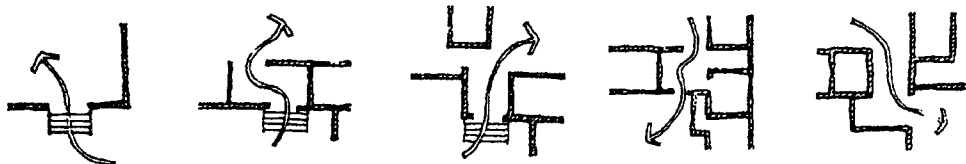


2. 대문에서 행랑마당으로 3. 행랑마당에서 중문으로



4. 중문마당에서 안으로 5. 안문에서 안채로

그림 3. 괴산 김기응 가옥의 단계별 경계 진입.(「괴산 김기응가옥」에서 인용)



행랑마당에서 사랑으로 행랑마당에서 중문마당으로 중문마당에서 안마당으로 안마당에서 셋마당으로 중문마당에서 사랑마당으로

그림 4. 괴산 김기응 가옥의 경계 진입의 동선(「괴산 김기응가옥」에서 인용)

마당에서는 주위를 둘러싸는 모든 방이 시야에 들어오는 반면 역으로 마당은 모든 곳에서 보여지며 사람들의 출입이 쉽게 식별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방에서 안마당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영역의 특징인 집단방어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직접적인 관계로 구조화함을 뜻한다. 안마당의 존재는 침실 전면에 필요한 시야를 확보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일체감을 느끼며 외래인의 접근 여부를 쉽게 감지하게 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경계 태세를 갖추도록 하기 때문이다.

전통주거는 안채와 부속 건물들이 마당을 중심으로 둘러싸는 폐쇄적인 모습을 하지만 누마루나 대청, 사랑방을 통하여 공간이 개방되므로, 안마당은 위요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갖춘 외부공간이 된다. 즉 안채 공간에서는 바깥쪽으로는 철저히 폐쇄시키지만 안마당 쪽으로는 공간을 열어두는 경계구조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반개방적인 안마당은 주택 내부와 직접 연결되는 매개 공간의 성격을 가지며 건물의 깊은 추녀와 툇마루와 함께 공동생활의 기능을 수용한 적극적인 활동의 장소로 사용된다. 안마당을 에워싸고 있는 주거공간에서는 때에 따라 편리한 대로 생활의 일부가 안마당으로 흘러나오거나 넘쳐흐르는 공간의 침투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안마당과 주거공간은 경계구조의 활발한 침투성으로 인하여 공간의 영역적 교류와 확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나아가 두 공간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게 된다. 이러한 경계구조는 안마당을 철저히 내부화시키려는 것이며, 안마당은 내부적 성격이 강한 영역이 된다.

이처럼 전통주거는 변화무쌍하고 위협적인 외부와 구분되는 경계를 설정하여 부동의 중심이 되며 의미있는 내부질서를 부여함으로써 편안한 거주를 가능하게 해주는데, 주거의 내부성은 마당에 있어서의 좌향결정이나 지신밟기, 복토흙치기의 습속과 巫歌, 그리고 불에 의해 장소와 사람을 정화시키는 민간신앙과 민속에서도 볼 수 있다. '신부가 시집에 들어갈 때, 말린 버나 보리짚을 태워 신부가 그 위를 지나가도록 하고 잡귀나 살을 제

거하는 절차를 밟는데'³¹⁾, 내외의 질서 확립에 관계되는 그 행위가 바로 내외의 경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에서, 경계를 통한 내부성 또는 공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통주거에 있어서 하인들의 거처는 대개 대문 근처에 두어 외부로부터 방어적인 모습을 취하였고, 이들의 생활 영역은 담장과 문으로 구획되어 주인의 생활 영역인 안채나 사랑채와 철저히 격리시켰다. 주거의 전면은 대체로 담장 대신 대문채로 둘러싸이는데, 중앙에 대문을 두고 하인들의 살림방이나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행랑채라 부르기도 한다. 전통주거는 대문간을 통해 행랑마당에 이르게 되며 그 주위를 행랑채가 대문간 양측에서부터 선상으로 둘러싼다. 이 행랑채에는 상전들의 출타시에 필요한 마필과 가마 등을 수용하는 시설을 비롯하여 상인들의 거처방과 가용품의 수납장, 외측 등이 배치되며 내객의 종자나 차마가 머물기도 하는 기능을 내포한다. 또한 행랑채와 행랑마당은 안마당과 사랑마당과는 시선이 차단되는, 외부와 주택 내부와의 완충 영역으로서 경계적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전통주거에 있어서 몇 겹으로 둘러싼 담이나 대문, 행랑마당을 지나 더욱 넓은 안마당이나 사랑마당의 영역으로 이어지는 한편, 사당과 별당은 주거가 갖는 영역의 확장감이나 공간감을 더해 주게 된다. 별당은 대개 안채와 사랑채 양측에서 통할 수 있게 배치되며 부속 건물이나 담장 등으로 격리된 일곽은 별당마당으로 불리며 정원으로 꾸며지기도 한다. 이처럼 안채의 옆이나 뒤에 다른 영역 및 건물과 완전히 분리되어 세워지는 별당은 경제적인 여유를 넘어 중심으로부터 확장되는 주택의 영역감을 더해 준다. 또 演慶堂의 濃繡亭, 임청각의 군자정, 선교장의 활래정, 독락당의 계정과 같은 정자 역시 단순히 자연을 감상하는 것 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거의 영역감을 확장하는 요소가 된다. 그리고 조령의 위패를 봉안하는 제사공간으로서의 사당은 그 의식적, 정신적인 성격과 함께 주택과 뒤뜰을 심적으로 연결하는 일종의 건축적 영역의 확대를 보여준다.

3) 神과 人間의 共存 領域

선인들은 인간의 의지와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신의 가호를 빌며 생활을 영위해 갔다. 선인들은 재앙을 방지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며 착한 신의 도움을 얻어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 공간 곳곳에 신성의 영역을 만들었다.

즉 선인들은 인간생활을 영위해 가는 주택을 삶의 그릇으로서 신과 가장 가까이에 접근시키며, 가내 평안을 유지시켜 주는 곳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선인들은 주택 곳곳에 있는 성주신·조상신·조왕신·터주신 등 가택신을 신주나 신체, 위패 등과 같은 것으로 구상화하여 모심으로써 평안하게 된다고 믿었다. 이 가택신들은 그 의미부여와 제의 행위에 의해 그들 사이에 어떤 위계 질서가 형성되며, 이 가택신 사이의 위계 질서는 그 사회구조나 세계관, 공간관을 반영한다.

이처럼 선인들에게 주거공간은 기능적 요구에 의한 물리적인 건축공간일 뿐만 아니라, 신의 개념과 우주의 원리를 상징하는 神性的 영역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신성의 영역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실질적 경계와 함께 보이지 않는 관념적, 상징적, 암시적 경계가 설정되어 각 영역의 성격을 결정지었다. 즉 주거공간은 이들 경계에 의해 타인이 왕래하며 이방인이 침해할 수 있으며 잡귀가 범하기 쉽고 속된 외부 세계에 대해 집안을 깨끗하고 신성한 곳으로 여기는 성속의 대립적 경계 구조를 갖는다.³²⁾

주거 내부에 있어서 가택신들 사이에 위계가 있듯이 그 신들의 관할처인 생활의 영역에도 위계가 나타난다. 내부와 외부가 대립되는 구조인 전통주거는 그 내부성이 강조되며 그 공간 대립성은 신의 위계, 실의 중요성에 따라 중첩되는 위계적 경계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전통주거는 인간과 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이중성을 가지며, 이러한 신성 영역은 주변에 있는 속의 공간과 구별되는 위계적 경계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4) 祠堂 領域의 境界와 그 性格

가묘 또는 사당은 조상의 神主를 모셔놓고 家祭를 행하는 장소로 신성한 영역이다. 이곳은 忌祭祀를 받는 가까운 조상의 祖靈들이 상주하는 곳으로, 이곳에 모셔진 신주는 삶의 연장으로 여겨져

자손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다. 즉 매일 아침 가장이 일찍 일어나 사당을 찾아 뵙는 晨謁禮, 가장이나 주부가 출입할 때 아뢰는 出入禮 및 參禮, 薦新禮 등과 같은 여러 의식은 이러한 조상 숭배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명혈이 사당터에 뭉쳐있다고 보았으므로, 집을 세울 때 사당터를 먼저 잡고 위치에 있어서도 다른 건물보다 높은 자리에 세우며 한번 세운 사당은 헐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禮와 序의 의식을 따르고 있다. 제사공간의 사당은 안채와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생활 공간에서 분화되어 나온 성스러운 공간이다. 사당은 위치적으로 볼 때 다른 생활 공간과는 달리 위계적으로 높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이 공간이 위계적으로 윗층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 공간 아래층에 존재하는 자들의 생활 규범과 규칙을 상징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혈족 통합의 기능을 가진 성스러운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

조선시대 가묘공간은 위치 상 뒤쪽의 산과 생활공간의 중심에서 있으므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중심성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사당공간은 소위 명당인 두뇌, 혈에 위치하여 상징적인 중심영역을 이룬다.

본채와 사당채와의 위치에서 보면 본채로부터 동남향 또는 동향, 북, 북서향의 순위로 놓이는 경계구조를 보인다. 동선의 유기적 관계상 중요한 관계의 지점은 비교적 거리가 가까워야 하며 행동의 원활함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광언(1988)은 사당을 사용하는 사람이 사랑채의 거주자들이라는 사실과 사당의 상징적 기능 때문에, 사당과 사랑채가 주택 내에서 비교적 같은 방향에 세워지며 거리상으로도 최단거리에 둔다고 지적한다.³³⁾ 반면 최지희(1990)는 이와 달리 사당으로부터 안채가 거리가 가장 가깝거나 사당채의 바깥 출입문이 안채 쪽으로 나있는 경우가 많아 사당과 안채와의 관계가 사랑채와의 관계보다 더 긴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당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안채로서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야 하며 기능상 중요하다'는 하회 마을 사람의 진술도 덧붙이고 있다.³⁴⁾ 사당 영역은 외부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대문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시켜 공간의 신성감을 더해 준다. 또한 사당에는 살아있는 신주를 모신 정중한 곳이기 때문에 담장을 쳐서 주위와 분리시켜 공간의 영역을 한정하며 독립성을 유지시키는 경계구조를 가지며, 담장 가운데는 외문을 내어 사당의 중문과 마주보게 하였다. 이 외문은 사람들의 생활 영역과 조령들의 敬의 영역을 구분하여 공간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기도 하지만 또한 살아있는 사람의 영역과 사자의 영역 두 공간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경계 요소가 된다. 또한 가묘는 주거내에서 가장 신성시되며 성스러운 영역으로 반드시 경계요소인 기단을 두어 담장으로 둘러싸인 영역에서 다시 영역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성한 가묘 영역에의 진입은 보통 계단이라는 경계 요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계단은 두 개의 공간 영역을 연결하거나 구분하는 기법으로서 형성되는데, 공간을 분절함으로써 공간 사이의 성격을 구분시키며 진입공간의 평면적인 구성을 입체적으로 변화시켜 주는 결정점이 되며 활력소의 역할을 한다. 가묘 영역에 있어서 계단은 공간 상호간의 분절과 연결을 위한 결정점의 역할을 하는 한편 초자연적이면서도 탈인간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즉 祖靈이 있는 보다 높은 성스러운 영역으로 좀더 가까이 진입하려는 자손의 효심에서 계단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게 된다.

한편 영역과 문의 관계를 살펴보면, 영역의 속성으로 문의 성격이 규정되지만 영역의 성격은 문의 형상으로 암시하기도 한다. 사당 영역을 경계짓는 출입구는 삼문의 형식을 취하는데, 가운데 문은 정중한 곳으로서 거의 양쪽 여단이 또는 사분합문이고, 양쪽 두 문은 한쪽여단이 또는 문을 내지 않고 창만 낸 곳도 있다. 또한 3문 중 가운데 神門은 혼령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양 옆문도 출입자격과 조건에 까다로운 제약이 가해지는 폐쇄성을 띤다.

무한히 균질적인 공간 중에 하나의 절대적인 고정점 또는 하나의 중심이 나타나서 그 장소를 다른 장소와는 특수한 것으로 느낄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한다. 이 때 균질적인 혼돈 상태의 속된 공간

과 비균질적인 성스러운 공간의 2가지 존재양식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출입구 또는 문이나 창문의 존재라 할 수 있다. 엘리아데는 문, 문지방을 경계선 또는 한계점로서 생각하며 속된 세계에서 성스러운 세계로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설명한다.³⁵⁾ 말하자면 사당은 죽은 가족과 남은 가족과의 영적인 만남의 장소이고, 문은 내외부공간을 연결시켜 주며 시각적으로는 전이 공간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또 건축공간의 존재가 인간학적 의미를 갖게 해 주는 필수적인 경계 요소인데, 사당은 바로 이 문의 존재에 의하여 무덤이나 다른 죽은 자들을 위한 공간과는 성격이 다르게 된다. 즉 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죽은 자들의 공간이나 문을 열게 되면 현재와 접촉하는 공간,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만남의 공간이 되어 죽음에서 삶의 상태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3. 建物(체)의 境界 構造와 그 性格

목조건축으로서 경사지붕을 하는 전통주거는 온돌식 구조와 극심한 한서의 온도 차이,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두터운 흙벽이 형성되었고, 개구부는 가능한 한 작게 되고 방은 거의 밀폐된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이 전통주거 건물의 경계구조는 주로 벽과 창문으로 이루어진다. 상류주택은 가구식 구조법으로 벽체는 심벽 구조로 되고 입면은 목구조에 의한 면분할로 아무런 장식 없이 단순하다. 그러나 창문은 반대로 다양한 창살 무늬로 인해 공간의 정서 변화를 느끼게 해준다. 벽은 토벽과 전벽, 판장벽 등이 있는데, 이러한 벽은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경계를 구분짓는 간막이 역할을 하며 또 창과 문을 위한 수직적 입면 바탕이 된다. 벽에 구성되며 건물에 들어가는 밖과 안의 경계가 되는 문들은 방문, 부엌문 등 기능으로 분리되며 바닥의 고저차와 바닥 소재가 달라지는 분기점이 된다.

전통건축은 서양의 건축처럼 자연과의 관계에서 맺고 끊는, 대립되는 경계구조가 아니라 목조 가구식의 벽체구조와 다양한 개구부가 발달되어 있고 내외부공간 사이에 상당한 침투성이 있는 경계구조를 갖는다. 공간의 침투 현상은 내외공간의

질적인 성격이 유사한가, 혹은 이질적인가에 따라 나타나는 경계구조의 상태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전통주거는 목조와 흙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마를 깊게 처리하였으므로 처마공간이라는 내외 경계의 중간공간이 형성되었다. 주택 정면의 처마공간은 뒷마루로 사용되고, 그 뒷면은 굴뚝과 생활도구 보관소로 이용되었다. 처마공간과 뒷마루는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닌 중립적 매개공간으로서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경계선이자 특수 기능의 영역이다. 이러한 인접한 두 공간 사이의 침투성은 자아와 비자아의 경계 상태를 나타내는 투과성(permeability)과 비투과성(impermeability)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아경계를 비유해서 말하면, 자아라는 심적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라든가 벽과도 같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³⁶⁾

전통주택에서의 공간의 영역성은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외형적, 가시적인 경계에 의한 것보다 심리적인 경계에 의해 차단하는 것이 더 강하다. 창호지문은 마치 금줄을 쳐 놓은 듯한 정신적 차단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차단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전통주거에 있어서 건물의 경계 구조는 시각적인 차단일 뿐 청각적 차단은 아닌 것으로 고도의 심리적 및 도덕적 경계 구조로 인식될 수 있다.

IV. 결 론

선인들의 삶을 담았던 전통주거에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기능의 분화, 그리고 유학의 남녀유별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정적 여성공간과 반사회적 남성공간으로 분리되며 영역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또한 조령이 모셔진 가묘의 공간영역은 禮를 중시하는 유학이념에 기인되어 생활공간에서 경계지어져 영역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간의 영역을 형성하는 경계에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짓는 가시적인 외형적 경계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암시적 경계로 대별된다. 암시적 경계는 생활과 종교, 사상 등 전문화적으

로 파악되어야 하는 심리적, 도덕적, 상징적인 경계이다.

전통주거는 실질적 및 심리적 경계 요소에 의해 외부로부터 보호되고 안정된 영역으로서 무질서한 세계 가운데 질서있는 장소로 인식된다. 이 전통주거는 담장과 문, 벽의 경계요소로서 몇 단계로 에워싸는 폐쇄적인 영역을 분절시키면서 개방적인 요소를 혼용하여 막힌 폐쇄적인 것에서부터 개방적인 것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중첩적인 경계구조를 보인다.

한편 신성의 영역을 구축하여 신성력을 통해 재앙을 방지하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고자 한 전통주거는 담장과 문의 경계요소를 중심으로 부정확한 외부와 정확히 내부가 대립되는 내외 대립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주거내부는 신이 보호해주는 신성영역으로 속의 공간과 구별, 대립되고 신들의 위계에 따른 위계적 경계성을 띤다.

물리적 및 심리적 경계로 구축된 영역으로 구성된 전통주거는 반복되는 경계요소에 의해 주거의 내부성과 공동성을 강화하여 거주자들에게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어 온 것이다.

주

- 1) Holahoun, C. J., *Environmental Psychology*, Random House, 1982, pp. 256-262
- 2) Proshnky, H. M., *Environmental Psychology*, Holt, 1978, p. 192
- 3) 상계서, p. 193
- 4) Holahoun, 전계서, pp. 256-262
- 5) 상계서, pp. 256-262
- 6) 임충신, '마을의 영역', 「공간」, 1984.11., p. 116
- 7) Bell, P.A, *Environmental Psychology*, Saunders, 1978, p. 145
- 8) Rapoport, A., 『주택의 형태와 문화』, 송보영 1인역, 태림문화사, 1985, pp. 121-122
- 9) 김종현·주남철은 “한국전통주거에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의 분화 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2호(1996.2), pp 81-89에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안채와 사랑채의

- 분화과정을 보여준다.
- 10) 유교적 생활규범을 적은 家禮에조차 사랑채에 대한 내용이 없다(김기주, 조선시대 중기 이후 반가의 공간사용과 평면 형식에 미친 가례의 영향,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4, p. 134).
 - 11) 김정기, “한국주거사”, 『한국문화사대계』 IV,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70, pp. 120-121
 - 12)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94, p. 16
 - 13) 김기주, 상계서, pp. 139-147 참조
 - 14) 禮記 卷十二 內則 「禮始於謹夫婦 爲宮室 辨外內 男子居外 女子居內 深宮固門 寺守之 男不入女不出」, 閤은 중문에서 출입의 금지를 말하는 자이며, 寺는 內人에 대한 금령을 받드는 자를 말함. 「正寢在前燕寢在後側室者燕寢之旁室也」
 - 15) 太宗實錄 卷 53년5월 癸卯條 「下令五部 夫婦別寢 禮曹以月令講之也」
 - 16) 增田友也, 『建築的 空間の 原始的 構造』, ナカニシカ社, 1978, pp. 217-222
 - 17) 黃善明, 『조선조 종교사회사 연구』, 일지사, 1985, pp. 58-60
 - 18) 崔鳳求, “조선시대 선비들의 유형과 행위유형-가묘, 문묘, 종묘의 분석을 통해서-”, 『정신문화연구』, '84 여름호, p. 173,
 - 19) 太祖實錄 卷 8 4년 12월 甲寅, 卷 11 6년 4월 丁未
 - 20) 太祖實錄 卷 11 6년 4월 丁卯
 - 21) 주남철(1994), 전계서, pp. 59-60
 - 22) 이재훈·김진균, “영역성에 의한 건축공간 구성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6권제6호(1990, 12), p. 151
 - 23) 담장이나 대문을 공간적 경계로 하여 집밖에 대해 집안을 신성하고 깨끗한 곳으로 여기는 내외대립구조는 민간신앙에서도 볼 수 있다. 최길성, “한국민간신앙의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9, pp. 93-100
 - 24) 황기원, “자연 속의 건축과 건축 속의 자연”, 『Plus』, 1989. 12, p.169
 - 25) 노자 도덕경 11장
 - 26) Rapoport, A., 『건축문화의 기원』, Snyder, J. C., 『건축학개론』, 윤일주외역, 기문당, 1984, p.18
 - 27) 주거의 문지방을 통과하기 위한 여러 제식들, 곧 절하기, 엮드리기, 경건하게 손을 대는 동작 등이 범세계적으로 보인다. 엘리아데, 『聖과 俗』, 이동하역, 학민사, 1983, pp. 21
 - 28) 孫世寬, “주거의 의미에 관한 현상학적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6권 제2호(1990, 4.), pp. 46-47
 - 29)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보진재, 1978, p. 56
 - 30) 『괴산 김기응 가옥』, 전통건축연구보고서 I, 연세대학교 동양건축연구실, 1987, pp. 129-134
 - 31) 張籌根, 『한국의 향토신앙』, 을유문화사, 1975, p. 97
 - 32) 최길성, 『한국민간신앙의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9, p. 99
 - 33)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대우학술총서, 1988, p. 88
 - 34) 최지희, “조선시대사당의 장소성 해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권1호(1990.2), pp. 149-150
 - 35) 엘리아데, 『聖과 俗-종교의 본질』, 이동하역, 학민사, 1983, pp. 20-21
 - 36) Bernard, L., 『Ego Boundaries』, 조성기, “한국 口字系 민가의 안마당에 관한 연구”, 『건축학논총』, 무에이광노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93, p. 516에서 재인용.

참고문헌

1.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29, 민음사, 1988
2. 김기주, 조선시대 중기 이후 반가의 공간사용과 평면 형식에 미친 가례의 영향,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4,
3. 김정기, “한국주거사”, 『한국문화사대계』, IV,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70
4. 박명덕, 영남지방 동족 마을의 분과형태와 건축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학위논문, 1991
5. 이순구, “조선초기 주자학의 보급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청계사학』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학회, 1986
6. 이왕기, 한국유교건축의 敬의 공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권 5호(1986.10), pp. 37-49
7. 이재훈·김진균, “영역성에 의한 건축공간구성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권6호

- (1990.12), pp. 149-156
8. 이호열, 『조선전기 주택사 연구-가사규제 및 온들에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91
 9.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5
 10. 최길성, 『한국의 사회와 종교』, 아세아문화사, 1982
 11. 崔鳳求, “조선시대 선비들의 유형과 행위유형-가묘, 문묘, 종묘의 분석을 통해서-”, 『정신문화연구』, '84 여름호,
 12.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 『한국문화사대계』 IV,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70
 13. 한영우, 『조선전기 사회경제 연구』, 을유문화사, 1991
 14. 黃善明, 『조선조 종교사회사 연구』, 일지사, 1985, pp. 58-60
- (接受 : 1999. 12. 29)